고창 반암리, 초기청자 생산 메카 확인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2차 발굴 보고회… 가장 잘 보존된 가마터로 총 11기 가마 확인

고창군이 전라북도 기념물인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에서 우리나라 청자의 도입과 기술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는 지난해 1차 발굴조사를 통해 벽돌가마(전축요) 1기, 진흙가마(토축요) 4기, 건물지 2동 등이 확인됐다. 유적은 10세기 후반부터 운영되어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화되는 과정이 층위별로 잘 나타났으며, 대형건물지가 확인되는 등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기념물(2022년 1월 14일)로 지정됐다.

올해 2차 발굴조사는 초기청자 가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남쪽과 서쪽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새로운 벽돌가마 1기와 진흙가마 5기, 건물지, 공방지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벽돌가마는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진안 도통리 유적 등에서 모두 1기만이 확인됐으나,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에는 벽돌가마가 최소 2기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진흙가마는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특히 3호 가마는 잔존높이가 최대 1.2m에 달하고 5차례 이상 보수하여 사용했다. 아궁이(火口)는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했는데, 내부의 재를 빼내기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2호 가마에서는 천정을 쌓아 올리기 위한 원형의 보조목(나무 구조물)이 확인됐고, 5호 가마에서는 청자의 초벌칸이 밝혀졌다.

벽돌가마의 상층에는 3호 진흙가마가 위치하며, 그 위로 4호 진흙가마가 들어서 있는데, 이는 1차 발굴조사 양상과 유사하다. 이러한 중첩양상은 다른 유적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는 '아파트형 가마터'로 불리기도 한다.

4호 진흙가마 불턱

석벽 건물지 전경

건물지는 벽을 돌로 쌓아 올린 석벽건물로,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추정되며, 주간거리는 4m 정도이다. 다듬은 돌을 눕혀 쌓은 후 진흙을 발라 마무리했는데, 최대 8단(높이 1.2m)까지 남아있다. 건물 내부에서는 많은 양의 평기와가 출토됐다.

유물은 청자류, 갑발류, 기와류, 도기류가 출토되었다. 청자는 가장 이른 형식인 선해무리굽부터 중국식 해무리굽·한국식 해무리굽·퇴화 해무리굽이 모두 확인되어 변화양상을 잘 드러내 준다. 또한 명문이 새겨진 기와편과 갑발 등이 확인됨에 따라 추후 반암리 청자요지의 운영시기,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에는 벽돌가마 2기, 진흙가마 9기 등 총 11기의 초기청자 가마가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초기청자 가마터 중 단연 으뜸으로, 고창 반암리가 우리나라 초기청자 생산의 메카임을 보여준다. 또한 길이 9m, 높이 1.2m가 넘는 석벽건물은 지금까지 다른 유적에서는 보고된 바 없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학술자문회의에 참석한 이종민 충북대교수(문화재청 문화재위원)는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지방확산 및 기술이전을 알 수 있는 의미와 함께 벽돌가마(전축요)에서 진흙가마(토축요)로 이행하는 과정을 잘 보이며, 잔존상태가 좋아 학술적 가치가 지대하므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발굴성과가 매우 놀라우며, 가장 이른 시기의 청자를 생산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를 비롯해 공방지 및 특수한 건물지 등 복합시설이 함께 확인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유적 보존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 문화재 등록예고

군산 활동 이영춘 박사 진료 기록 등 담겨

군산시는 농촌 보건위생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영춘 박사가 직접 기록한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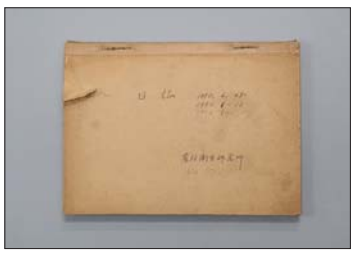
이영춘 박사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활동한 의료인으로 지난 1945년 개정중앙병원을 개설, 1948년 정읍에 화호중앙병원을 설치하는 등 지역농민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주었다.

이와 함께 1948년 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보건요원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1951년에 개정간호학교 설립 등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

이에 대한민국문화훈장, 대한적십자 봉사상 등을 받았으며, 사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추서됐다.

등록예고 된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은 1935년 자혜진료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3천 가구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진료한 기록 '자혜진료소 일지', 1947년부터 농촌 주민의 건강상태와 농촌의 의료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개정중앙병원 진료기록' 등이다.

기록물 중 '농촌위생연구소 일지'의 경우



농촌사회에 만연한 기생충, 결핵, 전염병 등으로부터 농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펼친 농촌위생사업 활동과정이 담긴 기록물로 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전 농촌 보건위생 체계를 갖춘 사례로 공중보건 의료사에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시 관계자는 "이영춘 박사의 사회공헌과 노력을 알릴 수 있게 해준 문화재청 및 관계전문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군산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문화유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은 30일간의 등록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근무 시간 음주 전북문화관광재단 관리자 강력 규탄"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 "방만한 경영 일삼는 관리자 엄중 처벌"

'근무 시간에 음주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관리자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만한 경영으로 구성원의 부담만 가중하는 인사방침과, 관리자들의 비위를 솜방망이 처벌로 매듭지려는 경영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1년 노동조합 출범 이후 승진 정체 방지, 직원 복지 향상 등 내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최근 관리직 비위행위, 직원 채용 문제, 단체협약 미이행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재단의 설립목적은 공무원 조직에서 도민을 위해 하지 못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100%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이 소수의 영달과 특권의식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재단에서는 감사와 지도를 하는 관리자들이 근무 시간에 이탈해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로 음주 행위를 벌이다 적발됐지만, 경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이런 행위가 배임·횡령의 고의가 심하다고 보고, 중징계를 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침에 따라 관리자 비율을 2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이미 비율이 초과했음에도 병 휴직 대체 자리를 정규직 팀장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경력직 채용 후 3~9개월 만에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시켜 문제를 일으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직 채용을 반복해 인사 적체 가중과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채용에서도 경력직을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하지만 노조의 주장은 재단에는 이미 경력 직원이 3명이나 있고, 이는 다른 기관에서까지 충분한 경력이 검증된 직원이 있으므로 전보를 통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남신 위원장은 "재단의 인사·복무를 감시하는 관리자들이 복무 기강을 무너뜨리고 회계 질서 문란을 초래한 점은 직원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줬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라북도에 직접 감사를 요청해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 노조는 지난 6월 29일 단체협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임금체불 건을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머물다 Stay' 권성수 작가 조각전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일상의 풍경을 확장한 권성수 작가 조각전이 열리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권 작가는 '머물다 Stay'를 주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 물가 풍경, 나무 등의 자연과 그 곳을 서성이는 신발 등을 매개로 3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들은 작게는 30여센티부터 크게는 2미터에 달한다. 입체로 구성된 작품 특성에 따라 관람객들이 작품 사이를 거닐며 감상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

삼례문화예술촌 관계자는 "이번 전시 동선 연출을 위해 작가가 여러 차례 전시장을 방문해 배치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정성껏 준비한 전시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전시에 참여한 권성수 작가는 "우리 일상 주변의 소소한 기억으로부터 시간을 되돌리고, 과거도 현재도 아닌 시간의 공유를 통해 공간의 확장 개념을 표현했다"며 "그 공간의 공유를 통해 소통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시는 9월 4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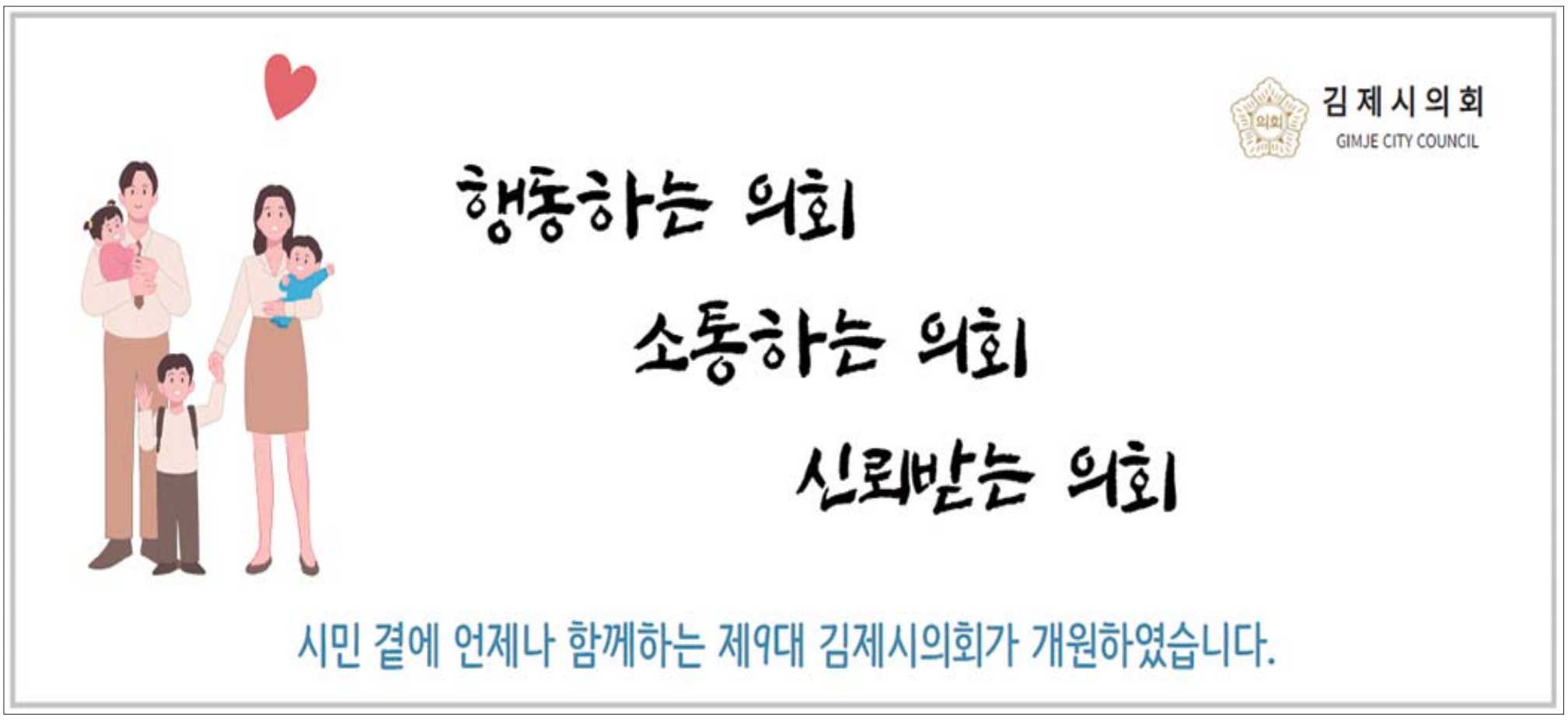
/완주=이중복 기자

순창군, 청소년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단원 40명 모집

순창군은 18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청소년으로 구성된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의 단원 40명을 모집한다.

'청소년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는 지난 2017년 6월 순창군, 순창교육지원청, 전북도립국악원, 순창군청소년수련관이 뜻을 모아 전통예술 및 국악연주를 접하기 어려운 순창군 청소년을 위해 창단했으며, 그동안 실력향상을 위한 예술캠프 진행 및 찾아가는 공연, 정기연주회 개최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해왔다.

모집대상은 가야금, 거문고, 아쟁, 대금 타악, 피리, 해금, 판소리 등 국악악기 및 국악에 관심있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으로,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모집하며, 기존단원은 중학교 3학년까지 신청 가능하고 재학 중인 학교 담임선생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국악오케스트라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순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며, 학생단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